

안동문화 **씨** FEEL

Andong
© Leejeonae

느낌이 있는 관광 | 2022 Autumn VOL.59

CONTENTS

A N D O N G ★ ★

04

Active Andong

예와 끼의 마을을 지나
물 위를 걷다



10

Notable Andong

영산암의 가을



16

Delicious Andong

396커피스토어, 카페 뒤뜰
마당지기 육자냉면, 베니네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여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20

Outstanding Andong

삼태사 흔적을 찾아서



26

Nightwalk Andong

달 뜨는 저녁 손을 잡고 노니네
'월영야행'



32

Gather Andong

안동관광 소식



36

☆ 안동, 머물다

#3.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

40

☆ 인터뷰

축제콘텐츠팀 김주호 팀장

발행인 이희범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김별 편집위원 황진현 남성원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2-9230 이메일 kb1228@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발행일 2022년 9월(통권 제59호) 디자인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중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와 끼의 마을을 지나 물 위를 걷다

글 김균탁 이육사문학관 학예연구과장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산서원, 병산서원, 봉정사와 세계기록유산인 유교 책판 편액을 등재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관광의 명소로 떠올랐다. 이전에도 안동은 이미 관광의 명소로 알려져 있었지만 다양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안동시는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 투자는 또 다른 관광의 명소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의

관광객이 안동을 찾게 되는 기반을 조성하여 각광 받는 관광의 명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동시 강변에 위치한 월영교다. 월영교는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로, 정해진 시간마다 분수가 뿜어져 나와 그 멋과 정취를 더하고, 봄이면 벚꽃이 만발한 길을 만들어 꽃비 내리는 환상의 숲을

건게 만든다. 또 가을이면 낙엽이 우거진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마음을 흔들고, 겨울이면 낙엽 굴러가는 소리와 설경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꼭 찾아야 할 안동의 명소가 되었다. 또한 낙동강을 따라 월영교 밑을 지나다니는 황포 돛단배와 밤이면 월영교의 이름에 걸맞게 달빛이 내려앉은 듯한 달 모양의 보트를 타는 재미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매진한 석주 이상룡(石州 李相龍) 선생의 집인 임청각(臨淸閣)이 일제에 의해 훼손된 모습을 없애고, 옛날의 모습 그대로 복원될 것이 결정되면서 월영교와 그 일대는 앞으로 더욱 유명한 관광지가 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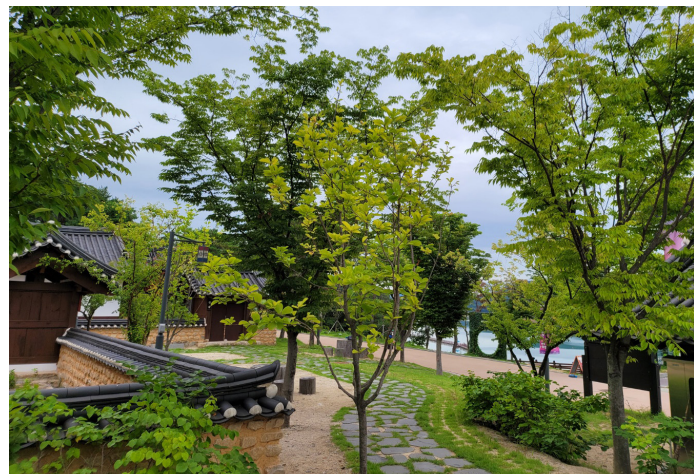
이외에도 안동에는 월영교 말고도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의 명소가 많다. 일명 비밀의 화원이라 불리는 곳이 그렇고, 임하호 캠핑 레저센터가 그렇다. 또한 묵계서원 일대와 만휴정이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면서 새로운 관광의 명소가 되어 국내외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안동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장소 역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그곳은 바로 예와 끼와 함께한다는 예끼마을이다. 예끼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그 주변과 함께 어울려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끼 마을은 세계기록유산

보유한 박물관이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바로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도산서원에서 차로 5분 거리, 이육사문학관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오는 길에는 하회마을처럼 한옥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군자리가 있다. 또한 안동에서도 조금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산림 과학 박물관이 오는 길에 있으며, 국제유교컨벤션센터라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유교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즉 예끼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을 위한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곳은 남녀노소 기호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끼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잊혀져 가고 있는 한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한옥이라하면 흔히 옛 가옥이라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곳은 현대의 감각에 맞게 만들어진 한옥 숙박촌이 있다. 신식 화장실은 물론이고, 방과 마당 역시 넓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숙박하기에 딱 알맞다. 또한 각각이 별채로 되어 있어 팬데믹 시대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오붓하게 숙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는 사실이다. 보통 한옥에서 숙박을 한다면 가격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예끼마을 선성현 문화단지의 한옥 체험관은 저렴한 가격과 편안함으로 입소문을 타 두 달, 석 달 전부터





예약이 가득 차 일찍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예끼마을은 예와 끼과 함께 존재한다는 마을의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끼를 가진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진 마을이다. 이 마을은 온통 아름다운 벽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조그마한 미술관이 두 개나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기획을 통해 다채로운 전시회를 열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사실적으로 그려진 벽화는 마을의 또 다른 자랑으로 사진 찍기와 이를 활용해 SNS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감각을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마을을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 산책 코스가 펼쳐져 있다는 점이다. 벽화길을 따라 쪽 늘어선 마을 산책 코스는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일명 인생샷의 명소이기도 하지만, 지역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실감나는 그림을 감상하며 지친 삶에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한옥을 따라 늘어선 산책 코스는 우리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며, 고풍스러운 한국의 멋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산책 코스는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길이다. 이는 단순히 물길을 따라 걷는 산책로만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수상길로 강물을 가로지른 나무로 만든 데크가 강 위에 길게 늘어져 있다. 특히 아침 물안개가 짙게 펼쳐져 다리를 뒤흔든 데크 위를 걸을 때면 마치 무릉도원의 어디쯤을 걷는 듯한 기분에 사로 잡힌다.

수상길의 매력은 아침 물안개와 함께 걷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은 낙동강 상류가 가진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강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특별함을 가진 수상길은 예끼마을이 가진 가장 큰 매력으로

강 위의 풍경은 물론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마치 동화나라에서 물 위를 걷는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준다.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다양한 산책길이 있는 예끼마을은 참살이를 위한 공간으로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 예끼마을을 중심으로는 관광단지가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에 예끼마을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모든 길은 도산서원을 건립한 퇴계 이황의 발자취가 군데군데 묻어 있는 길이다. 그의 애제자였던 월천 선생의 서당과 이어지는 길은 물론이고, 왕모산을 넘어 청량산까지 이어지는 길,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의 주된 촬영지였던 고산정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선비문화순례길이 있어, 산티아고와 같은 순례길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길들은 자연 경관과 함께 어우러져 안동이 가진 풍류와 멋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며, 옛 선비들이 즐기던 풍경 속에서 삶에 지친 심신을 치유해준다.

예끼마을의 또 다른 매력은 식도락(食道樂)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끼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진 관광단지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안동의 대표음식인 찜닭과 간고등어는 물론이고, 안동의 전통방식으로 만든 건진 국수를 맛볼 수 있다. 또한 강 앞뒤로 펼쳐진 밭에서 직접 생산한 메밀을 주재료로 만든 전통 메밀 음식 등 다양한 종류의 식단이 있어 입맛에 따라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근처 밭에서 생산한 메밀로 만든 진맥소주는 메밀 향이 은은히 퍼져나오는 술로 입맛을 돋우어 준다.

또한 이육사문학관으로 가는 길에는 264청포도 와인이 있어 최근 와인을 즐기는 젊은 층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딱 알맞다. 264청포도 와인은 ‘광야’, ‘절정’, ‘꽃’세 종류의 화이트 와인으로 각각 단맛의 정도가 달라 기호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골를 수 있으며, 와이너리에서 직접 시음도 가능해 취향에 딱 맞고 마음에 드는 와인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마을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로컬푸드라는 사실이다. 264청포도 와인 역시 도산면에서 생산되는 포도만을 와인의 재료로 사용하여 와이너리에서 직접 제조한다. 그렇기에 예끼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진 관광단지의 먹거리는 모두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드넓게 펼쳐진 메밀밭의 풍광과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제 안동은 중요한 몇몇 군데만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다. 안동시 전체가 관광의 성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 마을을 거점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목계서원과 만휴정, 삼베포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길안면이 그렇고,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풍산 장터를 중심으로 하는 풍산면이, 권정생동화나라, 권정생 선생 사시던 집, 운산 장터를 연결하는 일직면이 다양한 관광



루트를 연계함으로써 안동 관광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 도산면을 중심으로 한 예끼마을은 하나의 거대한 관광단지로 단 하루만에 즐길 수 있는 곳을 넘어 며칠을 머물러도 질리지 않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으며(이 마을에는 이육사 선생이 태어난 것 뿐만 아니라, 영화 ‘암살’의 주인공 전지현 배우의 모티브가 된 남자현 선생이 사시던 곳으로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가 20명 넘게 배출되었다.), 선비순례길을 통한 웰빙 관광은 물론, 도산서원, 월천서당, 한옥마을, 군자리 등을 통해 조선의 멋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청보리 축제, 이육사축전, 세계문화유산 축전 등 다양한 행사가 일 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져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안동호를 이용한 수상레저를 통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



음식과 전통주, 와인 등 식도락의 재미 또한 맛볼 수 있어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의 성지로도 거듭나고 있다.

자,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했다면 당장 짐을 싸자. 그리고 안동을 향해 출발해보자. 그것도 예끼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진 다양한 관광지를 탐방해보자.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안동과는 색다른 재미를 마음껏 즐기고 맛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안동이 가진 매력에 빠져 진정한 관광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영산암의 가을

글 이경아 『나는 안동에 삽니다』 작가

봉황 한 마리가 꼬리를 휘저으며 힘차게 날아오른다. 푸른 화선지에 흰 획을 길게 그으며 유유히 하늘을 날던 봉황은 이내 천등산 한 기슭에 날개를 접고 사뿐히 내려앉는다.

봉정사 창건 설화 중의 한 장면이다.

의상법사가 영주 봉황산 부석사에서 종이로 봉황을 만들어 도력으로 날려 보내니 이 봉황이 지금의 봉정사 자리에 내려가 앉았다. 의상법사는 제자인 능인을 보내 그 터에 절을 짓고 봉황이(鳳) 머무르는(停) 절이라는 뜻의 봉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다고 한다.

천등산에 대한 설화도 있다. 능인스님이 봉정사를 짓기 전 기도를 드리려고 산에 오르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햇불을 밝히며 길을 인도하였다고 하여 산의 이름이 천등산(天燈山)이 되었고 스님이 수행하던 동굴은 천등굴이 되었다고 한다.

봉정사의 창건 배경에 잔뜩 호기심을 느낀 나는 문헌을

뒤져 절 내에 있는 덕휘루(현 만세루)라는 누각의 이름으로 설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덕휘루의 덕휘는 한나라 가의의¹⁾ 『조굴원부』에서 나온 말로 「봉황은 천 길을 높이 날다가 성인의 빛나는 덕을 보고 내려간다」라는 문장의 일부이다. 여기서 봉황은 의상을, 성인은 부처를, 빛나는 덕은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화엄경을 유포한 의상법사의 업적으로 미루어 보아 참으로 설득력이 있는 작명이다.

1) 가의: 전한(前漢) 시대 최고의 천재 학자로 알려진 인물



공간의 역사를 이름으로 풀어보는 재미가 있다. 이왕 재미를 붙인 김에 한 가지를 더 소개해본다. 서후면 태장리 901번지 봉정사. 주소를 굳이 도로명이 아닌 지번으로 안내하는 이유는 태장이라는 지명 때문이다. 태장리의 옛 이름은 태무지였다. 고려 공민왕 6년에 왕족의 태를 이곳에 묻었다 하여 불리던 이름으로 1914년 행정 개편 때에 태장리로 개칭이 되었다고 한다.

신비로운 설화를 가진 절과 이를 품고 있는 마을과 산. 이름으로만 봐도 어느 한 곳 상서롭지 않은 곳이 없다.

서둘러 봉정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이내 멈춘다. 오르막길 초입에 있는 작은 정자가 나의 시선을 잡아끌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인근이 고향이던 퇴계선생이 친구들과 즐겨 찾던 곳으로 이를 기리고자하는 제자들에



봉정사



명옥대

의해 지어졌으며 근처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아름다워 명옥대(鳴玉臺)라는 이름을 얻었다. 원래의 이름은 낙수대(落水臺)였으나 귀향하여 50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은 퇴계가 명옥대라 바꿔 불렀다고 한다. 옥구슬 소리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퇴계 이황의 시
鳴玉臺(명옥대)

此地經遊五十年	이곳에서 노닌 지 오십 년
韶顏春醉百花前	젊었을 적 봄날에는 온갖 꽃 앞에서 취했었지
只今攜手人何處	함께 한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가?
依舊滄巖白水懸	푸른 바위, 맑은 폭포는 예전 그대로인데
白水蒼巖境益奇	맑은 물, 푸른 바위 경치는 더욱 기이한데
無人來賞澗林悲	완상하러 오는 사람 없어 계곡과 숲은 슬퍼하네
他年好事如相問	훗날 호사가가 묻는다면
爲報溪翁坐詠時	퇴계 늙은이 앉아 시 읊던 때라 대답해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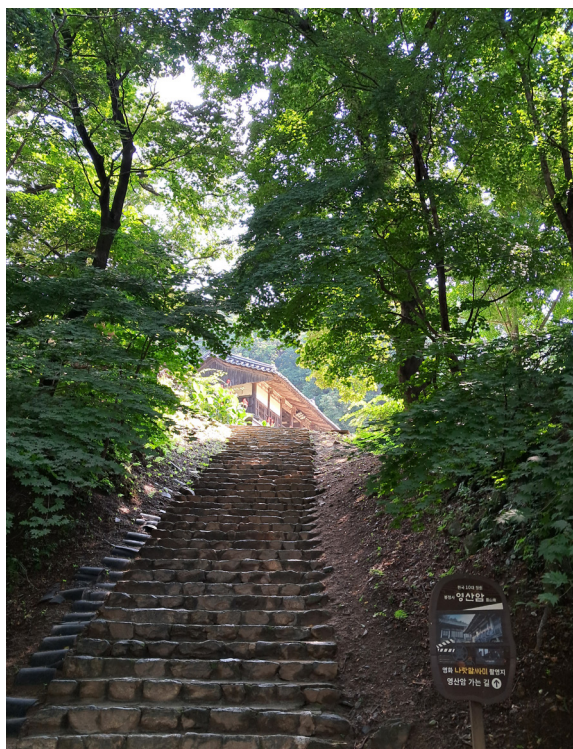
일주문



양옆으로 우거진 소나무 숲을 감상하며 오르막길을 오르면 조금 지칠 즈음 일주문이 나타난다. 일주문은 일반적인 건물의 문과는 달리 양쪽에 기둥을 하나씩 세워 지붕을 얹은 문으로 이곳부터 절이 시작됨을 알린다. 맞배지붕에 겹처마와²⁾ 측면에 풍판을³⁾ 설치한 다포양식으로 지어졌다. 일주문을 받치고 있는 기단은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불규칙한 모양의 돌들을 가로세로 줄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쌓아 올린 그 모양이 허튼층쌓기라는 어감과도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절에 다 오를 때까지 그 이름이 계속해서 입에 맴돈다. ‘허튼층쌓기 허튼층 허튼...’

오늘 봉정사의 기행도 이 기단의 모양처럼 삐뚤빼뚤하게 허튼 쌓기 양식으로 해 볼 작정이다.

봉정사는 규모가 큰 사찰은 아니다. 하지만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곳 중 하나로 당당하게 유네스코



2) 겹처마: 처마 끝의 서까래 위에 짧은 서까래를 잇대어 달아낸 처마

3) 풍판: 맞배지붕의 양 측면에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판재를 이어 붙여 만든 부분



세계문화유산에 그 이름을 올렸다. 봉정사의 극락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13세기 초 고려시대에 지어졌으며 대웅전은 조선 초기에, 고금당과 화엄강당, 만세루는 조선 중기, 영산암은 조선 후기에 각각 지어졌다. 이처럼 한 사찰에 시대별 건물이 함께 있는 것은 드문 경우로 살아있는 건축 박물관이라 불리며 각각의 시대별 건축양식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주심포양식, 조선시대의 다포양식 등 건물의 건축양식보다는 고즈넉한 한옥과 소박한 정원에 관심이 더 많은 나는 봉정사의 고건물들과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애초에 목적했던 영산암으로 향한다.

영산암은 봉정사의 부속 암자 중 하나로 대웅전의 동쪽에 있는 요사채에서 산 쪽으로 난 길을 따라 돌계단을 올라가면 있다. 본래는 봉정사와 영산암 사이에 얇은 계곡이 있었다. 그래서 봉정사에서 영산암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울을 건너고 꼬부라진 좁은 곳을 올라야 했는데 그 길이 상당히 운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유명세를 타며 영산암을 찾는 이가 많아지자 계곡을 메우고 계단을 설치하였고 운치는 반감되었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봉정사와 영산암이 이웃해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돌계단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

말장고 예쁜 돌들을 하나들 밟아 세면서 끝까지 오르고 나면 흡사 여염집 다락방을 닮은 포근한 우화루가 반갑게 맞아준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우화루 아래 작은 문을 통해 영산암으로 들어간다.

영산암은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우화루의 맞은편에 법당인 응진전이 있고 양쪽으로 요사채인 송암당과 관심당이 두르고 있다. 그 사이를 염화실과 삼성각이 메워 총 6개의 건물이 빗마루로 쭉 연결되어 있다. 마치 사이좋은 육남매가 ㅁ자의 형태로 서로 손을 꼭 맞잡은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흐뭇해진다. 중앙의 작은 마당은 조용히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닮아있다.

영산암의 이름은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하던 영축산을 의미하며 우화루는 석가모니가 처음 법화경을 설법할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과연 꽃비가 내릴 것만 같은 작지만 특별한 공간이다.

무엇보다 낮게 자란 소나무와 배롱나무, 작은 석등과 소박한 화초들로 꾸며진 마당은 건물들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소박한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건축이 이룬 최고의 성취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의 10대 정원에 속하기도 한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산사 순례 편에서 유홍준 교수는 「나는 이렇게 감정의 표정을 많이 담은 마당은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묘사스럽거나 번잡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니 그것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다.」라고 영산암의 마당을 소개하고 있다. 딱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듯하여 감사한 마음이다.

뿐만아니라 영산암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항거해 의병항쟁을 전개해나갈때에 의병을 조직하고 첫 모임을 열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어 공간적인 아름다움만큼이나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소중한 공간이다.

엄마 품에 안긴 듯 포근함이 느껴지는 영산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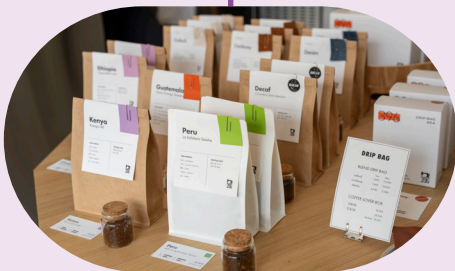
뒷마루에 앉아 따스한 별을 찍며 마음을 녹여본다. 어디선가 휩 불어온 바람이 내려가야 할 시간임을 알아차리게 한다. 그럼에도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바지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몽그적거려본다. 다음엔 템플스테이로 오랜 시간 머물며 이곳의 매력을 더 깊이 만끽해 보리라.

내려가는 길에 「그녀의 홈카페」에 들러 생강라테와 수제 케이크를 맛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맛으로도 친절로도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 그곳에는 단골들의 정과 의리에 늘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그녀가 있기에 산사에서의 아쉬움을 따뜻하게 달랠 수가 있다.



안동의 맛

글, 사진 이희철



396커피스토어



- 주소 경북 안동시 퇴계로 99
- 전화번호 054-901-1987
- 영업시간 08:00 ~ 18:00
- 휴무일 매주 일요일

396커피컴퍼니는 2021년 시작된 396커피컴퍼니(옥동 본점)의 팝업스토어다. 아담한 크기의 매장이라 편안하고 큰 테이블과 소파는 없지만 맛있는 커피와 다양한 디저트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매장 뒤편에는 좁지만 아늑한 야외 테이블이 있다. 우수한 품질의 스페셜티 커피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 특히 텀블러를 사용하여 포장하면 1,500원(메뉴별로 상이함)이나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직접 가지고 온 용기에 내가 원하는 양의 원두를 담아 구매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My bean, my bag!(MBMB) 코너도 운영한다. 매장이 작은 만큼 열정적인 바리스타들의 호응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카페이다.

카페 뒤뜰은 이름 그대로 매장 뒤편에 넓고 아름다운 뒤뜰이 있는 카페이다. 매장 앞 주차공간도 넉넉하고 내부 또한 매우 넓고 테이블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쾌적하다. 외벽은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뒤뜰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뒤뜰을 즐길 수 있는 2층 루프탑(노키즈존)이 있다. 특이하게 카페이지만 식사 메뉴로 돈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인근에 식당이 많지 않아 임하댐 방면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다. 커피의 원두는 안동 최대용량 하이엔드 머신 로스터기로 로스팅 한 원두를 사용한다고 한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카페 뒤뜰에서 커피 한 잔으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인근에 갈만한 곳으로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



카페 뒤뜰



-  **주소** 경북 안동시 임동면 경동로 2214
-  **전화번호** 010-3503-1313
-  **영업시간** 10:00 - 21:00
(돈가스 11:00~19:20 재료소진시 마감)
-  **휴무일** 매주 화요일



마당지기 육자냉면



- 주소** 경북 안동시 목성교길 19-5
- 전화번호** 054-855-1255
- 영업시간** 11:00 ~ 20: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10월~3월은 매주 일요일)

마당지기 육자냉면은 안동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냉면 전문점이다. 골목길 안쪽에 있어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인근 안동시청 주차장이 있는데 평일 1시간 무료, 주말 무료 개방이라 편리하다. 무더운 한여름에 더욱 생각나는 이곳은 기본 냉면 가격(8,000원)에 2,000원만 더 추가하면 양념돼지구이가 추가로 나온다. 물론 냉면과 찰떡궁합인 만두도 판매하고 있으며 기본 냉면에 8,000원 추가 시 LA갈비구이가 나오는 메뉴도 있다. 물냉면의 육수는 깔끔하면서도 깊어 국물까지 다 비울 정도로 맛이 좋았다. 비빔냉면 비빔장의 맵기는 적당하고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덜 매우면서 달짝지근한 것이 일품이다. 최상의 맛을 위해 예약 주문, 배달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계절 메뉴(10월~3월)로 갈비탕도 판매하고 겨울철에도 방문하기 좋다.



베니네는 7월 초 용상동 낙동강변에 새로 오픈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다. 베니네(Benigne)는 라틴어로 ‘친절하게, 너그럽게’라는 의미이다. 그래서인지 메뉴판 첫 페이지에 ‘친절하고 즐겁고 부드러운 분위기에 넉넉한 인심까지 더한 식당’라는 글귀를 좌우명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다. 실내가 꽤 크고 테이블 간격도 넓어서 편안한 분위기이다. 매장 안쪽으로는 가벽이 설치된 단체석이 있어서 중요한 모임에 예약하고 가면 좋다. 목살 스테이크는 부드러웠고 함께 나오는 가니시도 넉넉하고 다양하여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었다.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는 매콤한 토마토소스에 탱글탱글한 새우, 조개 등이 들어 있어 씹는 맛이 좋다. 기분에 따라 입맛에 따라 다양한 음식과 주류를 맛볼 수 있는 베니네에서 행복한 식사 한 끼 어떨까



베니네(Benigne)



-  **주소** 경북 안동시 관광단지 40
-  **전화번호** 054-823-5295
-  **영업시간** 11:30 ~ 22:00 (Last order 21:00)
(Break Time 평일 15:00~17:00
주말 16:00~17: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삼태사 흔적을 찾아서

글 이동백 시인

삼태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기로 계획한 날이 왔다. 폭염이 한고비 넘어서는 팔월 중순의 하늘에는 비를 머금은 구름이 무겁게 뒹다. 도중에 비를 만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지만, 기우이길 바라며 길을 나섰다. 세 곳을 겨냥해서 가는 길이라서 들리는 선후를 두고 잠시 망설였으나, 동선을 고려하여 안동김씨 태장재사를 먼저 들리기로 하였다.

안동김씨 태장재사



태장재사 안마당

태장재사 표지판이 선 덕수교를 건너서 재사¹⁾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관리인인 듯한 이가 나와 김태사의 후손이냐고 물었다. 후손은 아니고, 견학 왔노라고 하자, 이상루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문을 들어선 바로 맞은편 집 뒷마루에 십여 켤레의 큰 고무신이 놓였는데, 벽을 따라 나란히 벽에 기대어 섰다. 그 고무신 곁에 두 켤레의 작은 고무신이 양증맞게 놓여 있어서 그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좁은 마당을 지나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재사와 이상루가 길쭉한 마당을 사이에 끼고 마주 보며 섰다. 시조인 태사 김선평의 단소와²⁾ 봉향을 위한 태장재사는 一자형의 이상루와 口자형의 재사, ㄷ자형의 관리사로 구성되었다. ‘태장재사(台庄齋舍)’란 현판이 걸린 건물은 돌로 축을 높게 쌓은 기단 위에 들어섰는데, 주변으로 난간을 두른

1) 재사(齋舍): 묘제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

2) 단소(壇所): 제단들이 있는 곳



태장재사의 이상루

뒷마루를 설치했다.

재사 앞쪽에 자리 잡은 이상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이었다. 삼면이 벽을 이루고 안마당 쪽으로 터진 한 면에는 여덟 개의 기둥이 지붕을 떠받쳤다. 터진 쪽 양 가장자리에는 누마루로³⁾ 올라가도록 계단을 두었다. 누마루에 올라가기 전에 우선 눈에 띈 것은 안마당 쪽 들보 사이에 매달린 커다란 북과 북채였다.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인 행사 때, 그 시작을 알리는 구실을 맡는 듯했다. 누마루 문미에는 편액들이⁴⁾ 나란히 걸렸다. 1층 기둥은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주초 위에 세운 것으로 8각으로 모가 나게 짜였다.

누마루에서 내려와 누마루 밑으로 난 봉당을 가로지르고 대문을 거쳐 바깥으로 나와보니, 곧장 비가 쏟아질 듯했다. 계단을 내려와 구름 낀 하늘을 우러르는 순간, 이상루가 반공에 우뚝 솟아 쳐다보는 눈길을 압도하고 나섰다. 여덟 개의 기둥 위에 올라앉은 지붕은 추녀 끝을 살짝 들어 올린 자태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위엄을 지녔다. 2층 뒷마루에는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1층 삼면은 판벽을⁵⁾ 쳤다.

2층 누각. 중앙의 처마 밑에는 ‘이상루(履霜樓)’라고 새긴 현판이 붙었다. 서리를 밟으며 새벽 일찍 조상을 섬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의미는 이러하나마 이상루는 묘제⁶⁾ 후에 음복하거나 문중 회의를 여는 장소이다.

3) 누마루: 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

4) 편액(扁額): 종이·비단 또는 널빤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

5) 판벽(板壁): 판자로 만든 벽. 널벽

6) 묘제(墓祭):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



김태사 제단

요즘은 공연이 열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태장재사 북쪽으로 난 오르막길 위에 김태사 선평의 묘단이 자리 잡고 있다. 바람에 쓰러진 듯한 소나무가 시멘트로 포장된 그 오르막길의 일부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을 비켜 오르고 다시 계단을 올라간 곳에 김태사의 묘단이 널찍한 공간을 거느린 채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결으로 다가서서 살펴본 묘단은 아래가 방형이고 위가 원형을 이루었다. 이러한 형상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남을 형상화한 형태이다. 묘역 위로 올라가 전방을 바라보니, 수많은 산의 능선들이 포개져 아스라이 펼쳐졌다. 천등산 남쪽 기슭에 정남향으로 자리 잡은 묘단을 아스라이 포개 남쪽 산들이 감싸고 있었다. 이러한 묘역을 ‘화심혈(花心穴)’이라 했다던가, 아스라이 포개어 일망무제로⁷⁾ 펼쳐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호연한 마음을 다 얻은 듯했다. 쾌청한 날의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비 내리는 날의 조망도 가히 일품이었다.

시야를 한껏 넓히고 묘역을 내려오노라니, 가느다란 꽃대를 따라 꽃잎을 촘촘히 매단 꽃들이 파란 잔디 위에 자주색을 흩뿌려 놓은 것 같았다. 여름꽃, 무릇이었다.

무릇 무리를 뒤에 남겨두고, 내리막길을 잡아 들었다. 묘역을 벗어나 내리막 계단으로 채 들어서기도 전에 빗발이 후두기며 떨어졌다.

7) 일망무제(一望無際): 눈을 가리는 것이 없을 만큼 끝이 없이 멀고 먼 모습



김태사 묘역 위에서 바라본 전경(前景)

안동권씨 능동재사



능동재사의 추원루



담장 너머로 들여다본 능동재사 안 풍경

안동김씨 태장재사에서 풍산태사로를 따라 2km쯤을 달려, 태사길로 들어가는 들머리에 선 ‘권태사 묘소’ 표지석 근처에서 우회전하였다. 거기서 50m 들어간 길옆에는 돌꽃이 핀 화강석에 하마비가⁸⁾ 섰다. 권태사의 신도비각 옆에 선 이 하마비에는 ‘權太師內外孫下馬碑’란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권태사 내외손이라면 안동 사람이라면 거의 해당 될 터이다. 골짜기 안으로 달리는 것도 잠깐, 차는 안동권씨 능동재사 앞마당에 당도하고 있었다. 이미 빗줄기는 굽어졌다. 우산을 쓰고 능동재사를 바라보니 그도 역시 비를 맞아 기왓장이 번질거렸다. 비에 젖은 그 기와집 처마 밑에는 31세손 재형이 썼다는 ‘追遠樓’ 편액이

비스듬히 걸렸다. 추원루는 언뜻 보기에 이상루와 비슷한 정면 7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 집이었다. 2층의 전면은 여덟 개의 기둥을 누마루를 따라 세웠는데, 이상루와 달리 앞을 띄웠다. 누마루에는 계자난간이⁹⁾ 나 있었다. 1층의 벽면은 무판자로 처리하고, 그 중간에 출입문을 냈다.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옆으로 난 문을 열고자 했으나, 이 역시 잠겼다. 사람을 찾아도 사람의 기미를 느낄 수 없었다. 비도 내리고, 각다귀들의 침해가 너무 심해서 고개 내밀어 담장 너머 살피는 시늉만 하고 물러났다. 안타까웠지만, 추원루 앞 안내판에 의지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능동재사는 고려 삼태사 가운데

8) 하마비(下馬碑): 조선 때,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겨, 대궐 종묘 문묘 따위의 앞에 세웠던 돌비석

9) 계자난간: 계단, 마루, 다리 등 높은 곳 또는 높은 곳에 오르는 시설의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울타리.



풍산부원군 류증영 신도비



권태사의 묘소

한 분인 권행(權幸)의 묘제를 위한 재사이다. 1653년 관찰사 권우가 문중 사람들과 의논하여 16칸을 건립하였고, 1683년 관찰사 권시경이 누각 7칸을 지었다. 1743년 불타 없어진 것을 다시 지었고, 1896년에 또 화재를 당해 다시 지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좌측, 높게 쌓은 축대 위에 추원루를 배치하고, 안마당 건너 우뚝 솟은 재사 본채와 그 앞 양쪽에 동재와 서재가 합쳐져 전체적으로 ㄱ자형을 이루었다. 본채는 정면 7칸의 건물이 높은 대좌 위에 올라서 있다. 건물 중앙의 처마 밑에는 30세손 유하가 쓴 ‘陵洞齋舍’라는 현판이 걸렸다.

능동재사는 통상적인 ‘ㄱ’자형 구조를 벗어난, ‘ㄱ’자가 둘이 중첩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보통 재사에 비하면 그 규모가 크다. 이는 제례 행사가 성대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능동재사 바로 옆에는 권행의 독자인 낭중 권인행의 단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청도에 있던 단소를 2010년에 현재 자리로 옮겨 설치한 것이다.

능동재사에서 250미터 떨어진 곳에 권행의 묘소가 소재한다. 내리는 비를 맞아가며 왕복 5백 미터를 오가는 일이 수월찮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기다가 각다귀들이 군단으로 몰려와 비에 젖은 몸을 공략하고 들었다. 결국 그 길을 포기하고 차를 돌려 내려오다가 묘소 바로 밑에 차를 세웠다. 가파른 돌계단 길이 미끄러워 위험스럽기는 했으나, 각다귀들의 침해가

덜해서 오르기가 한결 쉬웠다.

묘소에 반쯤 이르는 지점에 근년에 지은 듯한 비각이¹⁰⁾ 서 있었다. 비각 안에는 귀부¹¹⁾ 바닥에 깔고 이수를 머리에 인 비석이 안치되어 있었다. 비문이 마모되어 글자 하나 읽을 수 없었다. 근처에 세워둔 안내석에 기록한 내용을 읽고서야 서애 류성룡의 부친 풍산부원군 입암 류증영의 신도비라는 사실을 알았다. 권태사 묘역에 들어서자, 세 기의 묘가 한 능선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올라가면서 차례대로 묘소 앞에 선 비석의 비명을 살폈다. 비명으로 확인한 결과 제일 아래쪽 묘소는 풍산부원군 류증영 부부의 묘였다.

이 묘소 바로 위에는 평창군수를 지낸 권옹의 묘였는데, 잃어버렸던 태사 묘를 찾고 난 후에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그 발치에 부장한 것이다. 그 전말을 적은 묘비를 묘 앞에 세웠다.

권태사 묘소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권태사의 묘소는 울창한 소나무가 호위하듯 에워싼 가운데 좌정했다. 기단을 따라 상석이 놓이고 그 기단 아래 망두석이 좌우로 벌려 섰다. 망주석 앞에는 살이 잔뜩 오른 문인석과 무인석이 나란히 무게를 잡았고, 묘소 바로 옆에는 ‘三韓壁上三重大匡亞父功臣權幸墓’라고 쓴 비석을

10) 비각: 안에 비를 세워 놓은 집

11) 귀부(鬼斧): 거북 모양을 한 비석의 받침돌



권태사 묘역 위에서 바라본 전경(前景)

설치했다.

묘역 위로 올라가 앞을 조망했다. 이 묘역도 김태사 묘역처럼 전망이 확 트이고, 첩첩이 포개진 산들이 저마다 모양대로 스카이라인을 이루며 파도처럼 멀리 퍼져나갔다. 하늘이 잔뜩 비를 머금고 있어서 포개진 산 틈새로 구름이 끼어들어 그 한 모서리를 뜯어낸다면 한 폭의 수묵화가 될 터이다.

안동장씨 성곡재사

빗물이 묻어 미끄러운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밟고 내려와 장태사 성곡재사로 들어갔다. 안동장씨 경당종택에서 한참 들어간 곳에 자리 잡은 성곡재사는 나지막하게 지나가는 산등성이 아래 조촐하게 섰는데, 건물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성곡재사의 영회루

흐르고 있었다. 이미 빗줄기는 굵어져 있었다. 이따금 각다귀들도 달려들었다.

성곡재사는 안동장씨 시조 장정필(張貞弼)의 재단을 관리하기 위한 재사이다. 이 재사는 1806년에 세워졌고, 1853년에 고쳐 지었으며, 1966년 콘크리트 구조의 영회루를 지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층으로 지은 영회루는 붉은 여섯 개의 기둥에, 천장과 처마 등에 단청을 화려하게 입혀서 멋을 뽐으로써 눈에 도드라지게 들어왔다. 거기다가 추녀가 길어서 지붕이 풍기는 멋이 활달했다.

영회루의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追遠齋’라 편액 한 건물이 마당 건너 정면에 자리 잡고, 그 앞에 동재와 서재가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었다. 강당인 추원재는 전면 다섯 칸의 팔작지붕 집으로 양 가장자리에 방을 두고 세 칸을 터서 마루를 냈다. 동재 옆에는 성곡재사 준공을 기념하는 자그마한 5층 석탑이 묵은 향나무에 기댄 채 고즈넉하게 섰다. 그 석탑 뒤에는 연못을 깊게 파서 연을 심어 놓았다. 연잎은 무성하나마 아쉬운 것은 두어 송이만 핀 연꽃이었다. 물이 너무 맑은 탓인지 계절이 아니어서인지 얼핏 감이 오지 않았다.

영회루 옆에는 성곡재사란 현판을 단 집 한 채가 섰다. 정사청 구실을 하는 집이지 싶었다.

장태사의 묘단은 영회루 앞을 흐르는 실개천을



성곡재사 강당



장태사 제단

따라 난 오솔길을 가다가 산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난 다리를 건너고, 또 하나의 작은 다리를 건너서 우거진 솔숲을 비집고 한참 올라간 자리에 위치하여 있었다. 낮은 묘축 아래 상석이 놓이고 그 앞에 문인석과 무인석이 다소 왜소한 모습으로 섰다. 그리고 그 앞으로 또 다른 문인석과¹²⁾ 무인석이¹³⁾ 섰는데, 그 모습이 위풍당당했다. 또 그 앞에는 망주석이 벌여 섰다. 장태사의 묘단은 묘축 위의 가운데를 의젓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묘단 오른쪽으로 거리를 두고 묘비석이 둘이 섰다. 둘을 세운 까닭이 뭘까 싶어 곁으로 다가가 보았더니, 검은 빗돌에는¹⁴⁾ ‘三韓

壁上三重大臣亞父功臣張貞弼墓壇’이라 쓰였고, 흰 빗돌에는 ‘三韓壁上三重大臣亞父功臣張貞弼祭壇’이라고 쓰였다. 내용이 같은 비석이었다. 둘 가운데 검은 빗돌이 후에 세운 것으로 짐작되었는데, 그것은 삼면을 돌아가며 둥그렇게 담장을 짓고, 잔디를 심어 묘역을 정비할 적에 세웠지 싶었다. 비는 줄기차게 내리고 시간은 흘러갔다. 빗물에 핸드폰이 젖은 까닭인지 끝 무렵에 이르러서는 촬영이 여의치 않았다. 각다귀도 렌즈에 어른거리며 방해하고 들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겨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장태사의 묘역을 뜰 수밖에 없었다.

기우이기를 바랐던 비는 귀가하는 내내 차창을 두드리며 강도를 높여 줄기차게 내렸다. 핸드폰 속에 든 사진도 비를 맞아 흐려지거나 앓을까 염려하는 찰나 차는 대문 앞에 닿고 있었다.

12) 문인석: 공복차림의 문관형상을 한 능묘 조각

13) 무인석: 갑옷과 무기로써 무장을 한 무관 형상을 취한 능묘 조각

14) 빗돌: 글자를 새겨서 세운 돌. 비석(碑石)

달 뜨는 저녁 손을 잡고 노니네 '월영야행'

글 정의지 『나는 안동에 삽니다』 작가

이쯤 되면 지나갈 것이라 믿었던 코로나 시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춤하려나 싶다가도 다시 고개를 드는 확진자 수를 보면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은 좀 더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고 싶은가 보다. 다행히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라 몇 년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치렀던 지역 축제들이 나름의 방역 관리를 앞세워 진행되고 있다. 안동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월영야행'도 월영교 일대에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작년 취소된 '월영야행'이 너무나 아쉬웠던 탓에 아이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월영교를 찾았다.

안동시 상아동의 월영교는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월영대가 이곳으로 온 인연과 월곡면, 음달골이라는 지명을 참고하여 이름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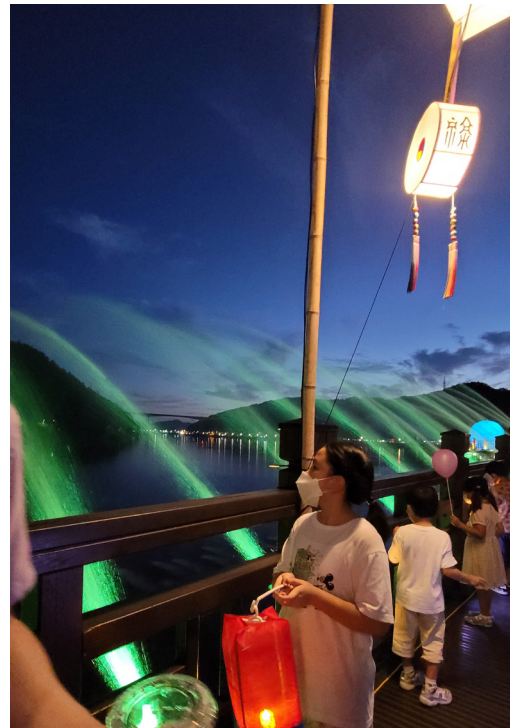
길이 387미터의 나무 울타리처럼 생긴 목책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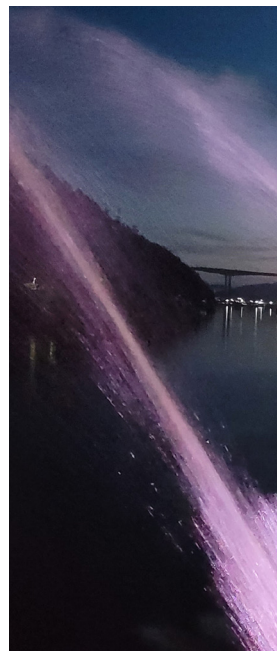




사람이 오가는 다리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 봄비지 않은 시간에는 다리 한가운데의 월영정에 앉아 낙동강의 잔잔한 물살과 노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날은 2년 만의 큰 축제라 그런지 해가 지기도 전에 주차장이 이미 만석이다. 아이와 농담처럼 “안동사람 여기 다 왔나 보다”하고 웃었다. 인파에 짜증이 나기는커녕 기다리던 축제 느낌이 물씬 나서 가슴이 설렌다. 운 좋게 맞은편 영락교 근처에 차를 대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영락교 위는 가지각색 메뉴의 푸드 트럭들이 자리했다. 코코넛 새우튀김, 관자 볶음, 소고기 스테이크를 만들어내는 청년 셰프들의 손이 바쁘다. 푸드 트럭마다 차례를 기다리는 긴 줄이 섰다. 그래서인지 송글송글 땀방울에도 셰프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오랜만의 축제에 이들의 살림도 두둑해질 것을 생각하니 함께 기뻐다. 영락교의 간이 테이블에 앉아 월영교를 바라보며 먹는 주전부리의 맛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일몰을 앞두고 물안개가 은근하게 월영교를 감싸 안았다. 오색 조명이 안개에 싸여 몽환적으로 보인다. 낙동강 수면 위로 비치는 다리의 반영이 더해져 더욱 운치가 있다. 교각 사이에 걸린 전통 등간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다리 위의 보름달 조형물 앞에서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다리가 발 딛을 틈이 없다.

황포 돛배가 유유자적하던 강물에 형형색색의 초승달이 떠다녔다. 월영교의 명물 문 보트(moon boat)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탑승자가 직접 방향을 조작하고 블루투스 연결로 스피커와 조명도 조절이 가능하다. 오리배처럼 전력을 다해 밟을 것지 않아도 조이스틱 하나로 운행이 되니 아빠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한다.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 구경할 것이 많아 조급한 마음에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했다.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올해의 ‘월영야행’은 안동 석빙고, 선성현 객사, 남반고택 등 월영교 주변의 문화재에서 펼쳐지며 공간과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개목나루 무대에는 행사 내내 버스킹과 마술쇼, 현악 앙상블 같은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로 풍성히 채워졌다. 달빛 따라, 밤길 따라 6곳의 문화 거점을 방문하는 스탬프 투어와 청사초롱 달빛 걷기는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

여느 지역 축제처럼 광장에 모여 으레 지역의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지루한 시간도 트로트 가수들의 소란한 노래자랑도 없어서 좋았다. 트로트 공연 대신 안동 하회별신굿 한마당이 벌어졌다. 기생 부대를 희롱하는 파계승의 능청스러움과 출랑대는 초랭이의 연기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웃음이 터진다. 주머니 받거니 대사를 치고 호응을 유도하자 관객도 하나가 되어 즐겼다.

체험으로 만든 청사초롱을 들고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하늘 위 알록달록 우산 조명이 이국적이다. 소박하지만 활기 넘치는 부스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안동 예술인들이 만든 수공예품부터 특산물을 가공한 먹거리까지 지역 주민들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준비한 정성이 느껴졌다. 간만의 야행에 엄마의 마음도 한없이 너그러워져서 평소에는 충치 생길까 사줄 리 없는 ‘불



나오는 솜사탕'에도 흔쾌히 주머니를 열었다. 중간중간 인스타그램에 남기고 싶은 포토존도 유쾌하다. 그리고 보니 유난히 젊은이들이 많다. 지난해에는 월영교와 낙강 물길 공원에는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제치고 안동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한다. sns에 올릴 인생 사진을 위한 MZ 세대들의 여행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루에 네 번 선보이던 월영교의 분수는 인심 좋게 한 시간에 한 번씩 물을 시원하게 뿜어내며 한여름의 더위도 코로나도 잊게 만들었다.

청사초롱 길 끝에서 축제에 들뜬 기분이 갑자기 차분해진다. '월이 엄마' 테마 길에 적힌 편지가 눈길을 끌었다. 옛글로 적힌 편지를 풀어 소개해본다.





원이 아버지에게 - 병술 유월 초하룻날 아내가

자네 늘 나에게 이르기를
 돌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나하고 자식하고 누굴 의지하며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이보소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여삐 여겨 사랑할까
 남도 우리 같은가 하고 자네더러 일렸는데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고

중략

아무리 한들 내 속 같이 서러울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소
 이 편지 세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 세세히 이르소
 나는 꿈에 자네 보리라 믿고 있노이다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택지개발과정 중에 무연고 분묘가 발견되었다. 무덤의 주인은 고성씨 이응태. 아이를 뱃속에 둔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서른 한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남편을 땅에 묻으며 편지 한 통을 남겼다. 4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잘 보존된 편지에는 그녀의 구구절절한 심정이 세로줄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 한지의 틈이

없이 빼곡히 박혀있다. 한 획, 한 획 서럽고 황망한 마음과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곱이친다. 시신의 머리맡에는 머리카락으로 지은 미투리 한 켤레도 함께 놓여있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미투리를 신고 남편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이리라.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신발은 바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강의 상징이었으나 그는 이 미투리를 끝내 신어보지 못하고 죽는다. 월영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원이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 모양을 형상화했다.

'원이 엄마' 테마 길에는 간절한 사랑을 영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상사병(love bottle)에 자물쇠를 달아 채워 놓았다. 원이 엄마의 편지를 읽고 나면 월영교가 다시 보인다. 운치 있던 물안개도 웬지 슬프게 느껴졌다. 옆에 나란히 걷던 남편이 본인에게 잘하라고 편지를 써서 피식 웃음이 났다. 월영교는 단순히 가장 긴 목재 다리와 화려한 조명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리의 역사는 짧지만

안동댐으로 수몰된 마을의 이야기, 조선판 사랑과 영혼 원이 엄마의 이야기, 고유한 다리 디자인 그리고 탄탄한 전통과 양반 문화의 콘텐츠가 담겨있다.

'과거와 현대를 잇는 다리' 월영교의 축제에 나흘간 2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니 얼마 뒤에는 안동의 대표 관광지가 바뀔지도 모르겠다. 늘어나는 관광객에 비해 아직은 협소한 주차시설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재미난 잡화점이나 카페, 식당이 부족한 점은 아쉽지만 점잖고 완고한 스텝으로 안동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모처럼의 지역 축제에 사람들의 얼굴에서 활기가 돈다. 코로나든 경제위기든 이 매력적인 고집쟁이 안동사람들은 곧 이겨낼 것만 같다.





202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

- 기간: 9월 29일(목) ~ 10월 3일(월, 개천절)
- 장소: 흙플러스 ~ 구 안동역사, 웅부공원 및 문화공원
- 문의: 한국정신문화재단 축제콘텐츠팀 054-840-3424

매년 안동의 가을을 들썩이게 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안동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회마을 등 안동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겨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한 많은 일반 시민들 역시 모두의 영웅이라는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다. 탈을 통해 자신만의 영웅을 만들어 가게 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시도로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2022 안동국제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유줄불놀이개최

- 기간: 8월 27일(토)~11월 15일(화)
- 장소: 하회마을 만송정 솔밭(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186)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하회마을의 전통 놀이인 하회 선유줄불놀이의 상설시연을 진행한다. 화려한 전통 불꽃놀이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로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야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선유줄불놀이는 8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총 10회 행사가 진행된다. 일몰시간에 따라 18시 행사가 시작되며 이번 행사에는 하회마을보존회와 하회마을 주차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영되어 더욱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선유줄불놀이에는 선유(船遊)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점화 시간 동안 배에서 무용과 시조창 등의 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이후 줄불놀이가 고조됨에 따라 시작되는 낙화 퍼포먼스는 깊어가는 가을밤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으로 다가올 예정이다. 선유줄불놀이의 정확한 일정은 안동관광홈페이지 (<http://www.tourando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일정을 체크하는 것을 추천한다.



성곡동, 먹토편스타 개최

- 기간: 6월 25일~10월 1일 매주 토요일
 - 장소: 안동문화관광단지(경북 안동시 성곡동 1563)
- ‘성곡동, 먹토 페스타’는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특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작되었다. 행사는 안동문화관광단지 주토피움 인근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야외에서 연인, 가족, 친구들과 현장에서 조리해주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푸드 존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위해 핸드메이드 공예품과 생활용품 등도 준비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다양한 세계의 탈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탈미디어 체험관람(유료)도 가능하다. 또 매주 다른 테마로 버스킹공연과 상시 이벤트가 진행돼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주고 있다.

월영교 야외민속촌 청사초롱 달빛걷기 프로그램 운영

- 기간: 7월~10월 매주 토요일 19:00~22:00
 - 장소: 안동댐 야외민속촌 달빛마루(안동시 민속촌길 26)
 - 가격: 1회 5,000원 현장 접수 계좌이체만 가능
-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의 밤을 더 특별하게 할 월영교 야외민속촌 야간 체험 프로그램 ‘청사초롱 달빛걷기’를 진행한다. ‘청사초롱 달빛걷기’는 월영교의 아름답고 고즈넉한 운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힐링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체험 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안동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원이 엄마와 이응태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월영교 달빛 아래서 월영교와 안동민속촌에 관한 이야기 해설도 들을 수 있어 더 매력적이다.





‘모디684 컬러풀 버스킹’-버스킹 공연 운영

- 기간: 5월 ~ 10월 매주 토요일 18:00~19:00
- 장소: 모디684 내 모디광장(안동시 경동로 684)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시와 함께 안동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해소 및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모디684 컬러풀 버스킹’을 운영한다. 공연 기간은 2022년 5월~11월이며 매주 토요일 18:00~19:00 한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공연을 진행 하므로써 지역문화 및 거리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을 운영하기 위해 시작되는 모디684 컬러풀 버스킹-버스킹 공연은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는 버스킹 문화를 전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한 ‘구름에 토요상설공연’

- 기간: 9월 ~ 10월 매주 토요일 16:00
- 장소: 전통리조트 구름에 ‘구름에 On’ 앞마당 (안동시 민속촌길 190)

넓게 펼쳐진 가을 하늘 아래, ‘전통리조트 구름에’에서 매주 토요일 특별한 전통문화공연을 선보인다. 감미로운 연주와 흥겨운 판소리, 탈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여 다가오는 가을맛이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가오는 가을 공연 역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행복한 주말 오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본 공연은 전통리조트 구름에의 복합문화공간 ‘구름에 On’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2022 슬기로운 안동 여행 인스타그램 사진 공모전 개최

- 기간: 5월 23일(월) ~ 10월 31일(월)
- 방법: 슬기로운 안동 계정을 팔로우 후 필수 해시태그 포스팅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의 주요 관광지들을 알리고 새로운 사진 명소들을 발굴하고자 ‘슬기로운 안동 여행 인스타그램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안동을 여행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안동의 인증샷 명소라면 어디든 가능하며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인 #슬기로운안동 #안동여행 #안동관광 #안동데이트 #안동맛집과 함께 업로드 시 참여가 완료된다. 10월 31일까지



최다 좋아요를 기준으로 주간베스트와 월간베스트를 선정하며 소정의 상품이 지급 후 수상작 전시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즐거운 안동 여행 중 찍은 사진으로 공모전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새롭게 단장한 안동역 100년 기록전시관, '역전풍경' 오픈

- 시간: 주중 09:00~18:00, 주말 10:00~18:00
- 장소: 구 안동역 모디 684

시민역(力)사 문화도시 안동의 거점 공간인 (구)안동역 모디684 '안동역 100년 기록전시관'에서 '역전풍경'이라는 주제로 전시품을 새롭게 구성해 상설전을 시작했다. '안동역 100년의 기록전시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안동역의 역사와 원도심의 변화, 과거 안동역 공간의 의미와 관련된 기록을 보여주는 상설 전시관이다. 이번 기획전은 원도심 형성의 중심축인 (구)안동역이 가진 상징성과 시대성, 지역민의 생활문화사를 보여주는 기획전시로 구성되었다. 전시관은 별도의 관람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안동민속박물관, 미디어파사드쇼 운영

- 기간: 6월~매주 금,토 20:00~21:00
 - 장소: 안동민속박물관 앞뜰(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촌길 13)
- 안동시립박물관이 미디어파사드(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투사)를 통한 '상상설화단'을 선보이고 있다. 박물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사용하여 상영되는 '상상설화단'은 안동의 허도령 전설과 선어대 전설을 모티브로 제작된 창작 설화로, 역귀에 씌인 호랑이를 허도령과 이무기가 힘을 합쳐 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쇼는 한 달간의 영상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6월 3일부터 정식 오픈하여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관 교육시설 무료 개방

개방 시설

- 재봉실, 컴퓨터실, 일반강의실 이용

개방 시간

- 평일 09:00 ~ 18:00
- 일과시간중 교육이 없는 시간 이용(주말·공휴일 휴무)

이용대상

- 안동시민 누구나(안동시에 주소를 둔 시민)

이용시간

- 개인: 4시간 이내
- 동아리: 2시간 이내(5~18명 이내)

이용방법

- 평생교육과 사무실에 비치된 시설 사용신청서 작성 제출 ※ 신분증 지참

안내사항

- 교육시설 정월 내 입실 제한
- 학습동아리외 시설에 부적합한 동아리 사용 제한
- 예시)소음이 강한 악기, 음악, 노래, 기타 시설을 파손이 우려되는 동아리
- 음식물·음료 섭취·반입 금지(물 제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방지를 위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

평생학습관 무료 개방

- 시간: 평일 09:00~18:00
 - 장소: 안동시 평생학습관(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93)
- 안동시는 평생학습관 교육시설을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했다. 이번에 무료 개방하는 시설 공간은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재봉실, 컴퓨터실, 일반강의실을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하고 학습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개방 일자평일 일과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로 교육이 없는 시간에 이용가능하다. 이용자는 평생교육과에 사용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안동시민 확인용) 제시 후 지정된 공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있다. 안동민속박물관에서의 미디어 파사드 쇼 관람 후 인접하게 위치한 월영교 산책으로 안동의 밤을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3.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

안동 머물다의 원고를 써야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으로 된 고택들은 에어컨도 없다는데... 한옥에 그렇게 별레가 많다는데... 로 시작된 나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이런 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 주차가 편리, 에어컨 및 시설이 깔끔하게 갖춘 멋진 한옥을 찾아야만 했고, 선성현문화단지에 위치한 한옥체험관을 찾아냈다.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은 안동시 도산면 예끼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예술과 끼가 넘치는 마을이란 뜻의 예끼 마을에는 골목골목 벽화가 그려져 있고 고양이들이 유유히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빈 건물들을 활용한 갤러리와 담벼락의 벽화는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면 있는 선성수상길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로써 낭만을 선사한다. 한낮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7시만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이 마을은 '느리게 가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예끼마을의 필수코스로는 앞서 말한 선성수상길과 선성현 문화단지가 있다. 선성수상길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호수의 물결이 느껴진다. 드넓게 펼쳐진 안동댐과 바람을 타고 오는 아카시아 향기는 수상길을 걷고 있는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든다. 선성현 문화단지는 선성현 관아를 재현한 공간이다. 관아의 대문에 해당하는 아문부터 외국 사신이나 관리의 숙소로 사용되던 객사까지 옛 모습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문화단지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산성공원이 나오는데 산책코스로 제격인 공간이다.

선성현한옥체험관은 2인~8인 방부터 최대 20명까지 수용 가능한 숙소까지 다양한 크기의 방이 준비되어 있다. 옵션으로는 바비큐와 세미나실이 이용이 가능하고 바비큐의 경우 30,000원만 추가하면 숯불 향 가득한 고기를 맛볼 수 있으니 적극





추천한다. 예끼 마을의 하나로마트는 오후 7시면 문을 닫으니, 늦게 입실하는 경우 미리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해 숙소로 오는 것을 추천한다. 숙소에서 3분만 걸으면 나오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구멍가게는 8시까지 여는 것이 방침이라고 하셨으나, 모든 것은 주인 맘이기에 일찍 문을 닫을 수도 있다.

2인의 작은 숙소의 경우 선성문화단지 입구 쪽에 숙소가 있지만, 6인 이상 큰 방은 예끼마을 보건소 뒤편에 위치한다. 숙소를 예약할 때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으며 주차장은 넓고 편리하다. 예끼 마을에 도착하는 버스도 운행하나, 교보생명에서 오후 6시 버스가 마지막이었기에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했다. 조금 걸어 도착한 한옥 체험관은 마치 사극 세트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의 한옥단지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절로 설레기 시작했다.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선성수상길을 산책한 다음 숙소로 걸어갔다. 해가 저물고 달이 뜨기 시작하면서 숙소로 가는 길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24평 숙소 기준 120,000원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인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은 깔끔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내부에 숙소 거실과 방마다 큰 창이 있어 전통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숙소는 사장님께서 깨끗이 관리하고 있어서 먼지를 찾아볼 수 없었고 잠자리에 불편함이 없었다. 한옥 특유의 높은 층고가 인상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 시간인 11시에 맞춰 숙소를 나오니 방을 분주히 청소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보았다. 이불 커버 부터 베개에 이르기까지 매번 세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장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전통 숙박 분야 만족도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은 선성수상길과 더불어 한국국학진흥원, 예안향교, 산림과학박물관, 도산서원 등의 관광지와 근접해 있어 관광 접근성이 좋으며 자차를 이용한다면 이육사 문학관까지 어렵지 않게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최대 50명까지 이용이 가능한 세미나실을 구비하고 있어 연수 및 단체 세미나 그리고 가족 행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전통 한옥 방식과 현대식의 건축 조합으로 한옥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전통 한옥이 주는 불편함으로 고택 체험을 망설이고 있다면 선성현문화단지 한옥체험관을 추천한다.



선성현문화단지한옥체험관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옛 관아를 복원해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단체인원 및 예약은
선성현문화단지한옥체험관 문의
(054-841-0112)

주소 : 안동시 도산면 선성5길 8



☆ 인터뷰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는 한국정신문화의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관광·인문·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필이 발행되는 9월에는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가을호를 맞아 **한국정신문화재단 축제콘텐츠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하 탈춤축제)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코로나가 다시 일상을 뒤흔치며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습니다.

안동의 가을을 신명과 대동으로 들썩이게 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9월 29일(목)부터 10월 3일(월)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도심에서 거리형 축제로 개최가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모든 이가 영웅이라는 세계관을 담아내며, 모두가 거리로 나서 힘든 세상, 즉 탈이 많은 세상을 정의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는다는 올해 탈춤축제 주제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진행해온 탈춤공원에서 원도심 일대로 장소를 변화시켰고, 코로나19의 상황과 원도심의 민원과 피로도를 감안하여 축제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5일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축제 개최가 원도심 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전시, 공연, 시민 참여 등의 모든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24개 읍면동의 부스가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주도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탈춤축제의 첫 시작이 기억나시나요?

탈춤축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7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저에게 1997년의 탈춤축제의 기억은 지방 도시 안동에서 외국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탈춤 공연이 있었다는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이후 2002년에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에 가입하여 관객의 입장에서 탈춤을 공연하는 공연자의 입장으로 탈춤축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당시의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축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에게 탈춤축제의 첫 시작은 세 번의 시간으로 그때마다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탈춤축제를 기획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탈춤축제를 기획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탈과 탈춤 그리고 축제가 갖는 가치관과의 조화입니다. 탈과 탈춤은 인류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탈과 탈춤 문화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탈을 쓰는 순간 인간은 탈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남녀노소, 계급, 인종, 민족의 경계가 무너지며 평등한 사회가 구현됩니다. 즉, 탈과

탈춤을 통해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윤리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지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축제라는 비밀상의 시공간 속에서 재미와 흥미를 만들어내어야만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인이 공감하는 국제적인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탈과 탈춤 그리고 축제가 가지는 정체성을 구현하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기 이전 탈춤축제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큰 축제였는데, 이토록 크게 성장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탈춤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입니다. 지난 1997년 시작되어 2002년부터 연속 6년 전국 최우수축제,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4년 연속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를 어어 5년 연속 대한민국 글로벌육성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25년을 이어오는 가운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와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 3번의 씬은 있었지만, 언제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등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고 추억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열심히 준비한 축제를 신종플루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며칠 남지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되는가 하면,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개최하지 못했던 축제들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계속 탈춤축제의 이야기만 진행해왔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축제콘텐츠 팀장으로서 목표가 궁금합니다.

사실 탈춤축제 만으로도 안동이 가지는 축제의 위상과 목표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축제가 미치는 영향은 큼니다. 축제콘텐츠 팀장으로써 축제의 관점에서

몇가지 목표가 있다면,

첫째. 안동을 대표하는 사계절 축제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계절 축제는 봄의 벚꽃축제, 여름의 월영야행, 가을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겨울의 암산얼음축제입니다. 이 축제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안동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안동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둘째. 축제라는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축제는 비밀상의 공간에서 대동과 신명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이 만든 축제를 통해 축제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 지역의 문화인력과 문화역량들이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문화활동 내지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위해 종사하시는 선후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판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성공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지역의 일꾼들과 함께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넷째. 공동체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진 “문화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사업들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전승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고 싶습니다. 안동에서만 만나볼 수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동의 문화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판에 사람들은 배고프다는 옛 생각들을 이제는 바꿔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판을 만들고,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의미 있는 문화인들이 되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2022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제49회 안동민속축제

2022. 9. 29. THU - 10. 3. MON

안동 원도심 일대



탈난 세상
영웅의 귀환

제9회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2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22. 9. 21.(수) - 9. 23.(금) |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대전환, 그 너머의 세상 : 인류를 위한 질문

Great Transformation, The World Beyond : Questions For Humanity

사전등록

2022. 8. 30.(화)
- 9. 16.(금)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홈페이지
www.adf.kr



실시간 라이브 시청방법

- 1 홈페이지 접속 후 **ON AIR** 클릭
 - 2 유튜브에 검색
-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막식

9월 21일(수)
16:00-17:30
김황식 **기초강연**
호암재단 이사장



폐막식

9월 23일(금)
18:30-19:30
제물김 **특별강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공유세션

개막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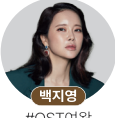
9월 21일(수)
20:00-21:30
가을밤,
노래하다



윤형주
#썬시봉



김태연
#미스트롯



백지영
#OST여왕

미래수업

9월 22일(목)
16:00-18:00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



장동선
#뇌과학자



곽재식
#SF소설가

도전의 가치

9월 23일(금)
10:00-12:00
건강한 도전,
내일을 향한 꿈



황영조
#몬주위의 영웅



이승윤
#자연인



핑크콘단
#핑크콘단

새싹 콘서트

9월 22일(목)
14:00-15:30
랑랑별 여행



랑랑별의 선물
#어린이 뮤지컬



편해운
#기적의 놀이터

청춘 콘서트

9월 22일(목)
20:00-22:00
청춘 인사이드,
#갓생살기



노흥철
#청춘의 아이콘



현진초이
#스우파



권혜봄
#모르모트PD



일리아
#비정상회담

영화 콘서트

9월 23일(금)
13:30-15:30
'당신은 충분히
예뻐요'



라이너
#영화평론가



서동일
#영화감독



정은애
#미술작가



김소미
#씨네21

모색세션

9/21(수)	13:30-15:30	팬데믹 이후 사피엔스 어디로 가나
	09:30-12:30	인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으로서 선비문화
	10:00-12:00	2022 인문가치 논문 공모전
9/22(목)	10:00-12:30	훈민정음, 은누리에 펼쳐다
	13:30-15:30	뉴노멀 시대,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16:00-18:00	내일을 위한 행동
9/23(금)	10:00-12:30 / 13:30~15:30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13:30-15:30 / 16:00-18:00	오래된 미래

이육사육필전

문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의 육필과 그림 전시 편지와 엽서 등 이육사의 내면 기록이 담긴 자료를 통해 그 속에 담긴 공감과 위로의 정서를 소개



BOOK 큐레이션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권정생 선생의 동화책을 통해, 다양한 인문가치를 느낄 수 있는 도서전시



구현세션

9/21(수)	13:30-15:30	윤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9/22(목)	13:30-15:30	대전환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여행자들
	16:00-18:00	뉴노멀, 지속가능한 삶
9/23(금)	10:00-12:00	삶터에서 만나는 생활 속 인문가치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찾아오시는 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301

서비스 *홈페이지 참고

안동역(KTX) / 시외버스터미널 ↔ 안동시청 ↔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안동대학교 ↔ (구)안동역 ↔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문의처 | T. 070-7633-0908 E. kjh@pod-pco.com

예산지원	예산액			
	총예산	국비	도비	시비
안동시 유교문화권사업과	900백만원 (100%)	300백만원 (33.33%)	300백만원 (33.33%)	300백만원 (33.33%)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



blog.naver.com/aftf



[instagram.com/andongtour](https://www.instagram.com/andongtour)



www.facebook.com/tourandong



'안동노닐기' 검색